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사마왕 즉 무녕왕이 왜국에서 태어난 까닭은?

곤지가 무녕왕 데리고 왜국으로 건너가

사마(무녕)왕의 귀국

1971년 7월 어느 날에 공주의 무녕왕릉이 발굴되었다. 무덤은 수만 장의 벽돌로 지은 정교한 집과 같았다. 하지만 이 낯선 형식의 벽돌무덤 속의 주인공 공이 무녕왕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제25대 사마왕이 무녕왕임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서기』는 이 무덤의 신분과 출생을 알려주었다. 주인공은 사마(무녕)왕과 그 왕비였다. 이 왕릉은 많은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곳이다. 발굴 당시 이 무덤의 문은 매우 단단하게 회철이 되어 있었다. 출토된 금속공예품은 화려한 백제미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을 열었던 당시 발굴단(단장 김원동)은 발굴 도중 200밀리미터의 장마비를 만났다. 이들은 무덤 속의 108종 3000여 부장 유물들이 어떻게 배치되었으며, 왜 이런 유물들이 안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하룻밤에 발굴을 끝냈다. 최초의 위대한 발굴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발굴이 되었다.

백제의 아신(阿辛)왕은 가야에 이어 왜국과 화친을 맺고 만이들인 태자 전지(腆支, 直支)를 왜국에 보냈다. 왕이 죽자 둘째 아우 훈해(訓解)가 정사를 대행하며 태자의 환국을 기다렸는데, 막내 아우 첨례(첨禮)가 훈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전지는 왜국 군사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해도(海島)에 기다렸는데 나라 사람들이 첨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아 즉위하게 하였다. 그를 이은 구이신(久爾辛)왕은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다시 비유

(毗有)왕이 왕위에 올랐다. 비유왕이 29년을 재위한 뒤 승하하자 아들인 개로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위와 신라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고구려와는 전쟁을 끊이지 않았다. 고구려는 개로왕(蓋婁, 近蓋婁)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둑의 고수인 승려 도림(道琳)을 첩자로 삼아 백제 왕실에 침투시켰다.

개로왕은 재위 21년 이래 도림의 꾀임에 넘어서 바둑으로 일관하였다. 바둑으로 신임을 얻은 도림의 꾀임에 의해 국민을 동원하여 궁실과 누각과 대사를 굉장하고 화려하게 마련하자 참고가 텅비고

日 가당도에 '무녕왕탄생지' 신위 모셔줘 무녕왕은 규모 대왕으로서 권위 보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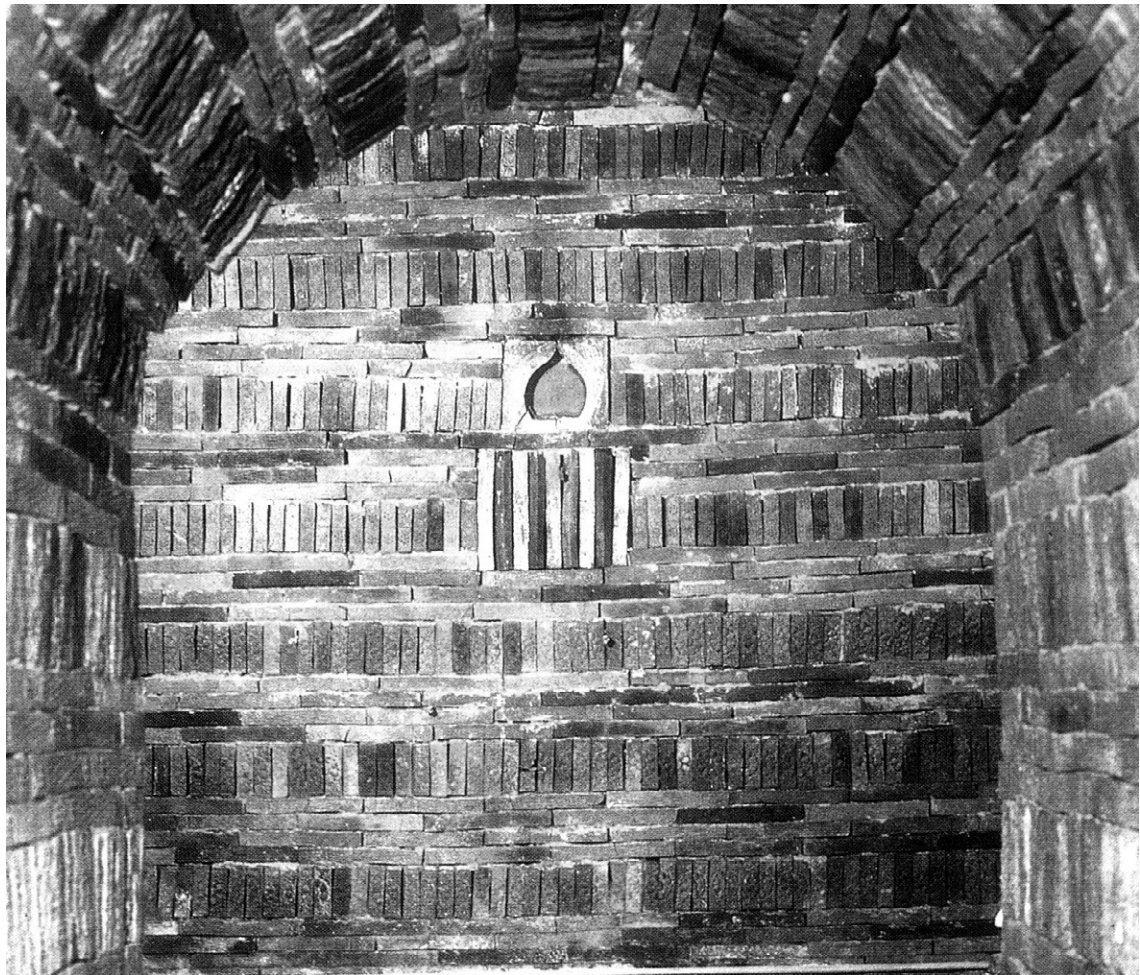
백성이 곤궁하여 나라의 위태함이 알[爾]을 포개 놓은 것 같았다. 도림이 고구려로 도망하여 이 정황을 장수왕에게 알리자 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개로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않았으나 고구려 군이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성을 태우자 궁박했던 개로왕은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문을 열고 나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 군에게 살해당했다. 결국 개로왕은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이로써 한성백제는 문을 닫았다. 그의 아들인 문주(文周, 汶洲)

왕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문주왕이 재위 4년 만에 실권을 잡은 병관좌평 해구(解仇)에게 시해되자 그 만이들인 삼근(三近)왕이 재위에 올랐다. 하지만 삼근왕 역시 재위 3년 만에 승하였다. 문주왕의 아우 곤지(昆支)의 아들인 동성왕이 재위에 올랐다. 답력이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았던 동성왕은 재위 23년에 신라와 전투를 벌이던 중 가림성(加林城, 임천 성흥산성)을 지키라고 명했으나 가기를 싫어하고 사직을 한 장군 백가의 자객에게 시해당했다. 동성왕은 왜국에서 태어난 동성왕의 둘째 아들 사마(薩)를 왕위에 올렸으니 그가 바로 무녕왕이다.

무녕왕의 즉위와 국제화

개로왕(기록은 문주왕?)의 아우였던 곤지는 461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곤지는 여인을 돌려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왜국의 오오사카로 건너갔다. 하비키노시 아소카 마을에 남아있는 아스카베 신사(飛鳥戸神社)에서는 지금도 '백제의 곤지왕(健知王)'이 죽어서 조상신으로 추대되어 추앙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곤지가 일본 열도내에서 기반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곳의 신사에는 사마가 '섬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온 아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섬은 큐슈 후쿠오카 북쪽에 있는 가카라시마(加羅島)이며 가당도(加唐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섬은 현재에도 약 100호 정도가 살



무녕왕릉으로 인해 존재가 드러난 무녕왕은 당시 국력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국제전을 전개한 장본인이다.

고있는 조그마한 섬이다.

이 섬에는 동쪽 끝 절벽의 계단 아래에는 '오비아'(オビヤ)라는 해안동굴이 있다. 이곳 마을에서 20미터 앞에는 우물이 있으며 무녕왕이 이곳에서 태어나 우물에서 씻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무녕왕생탄지'(無寧王生誕之地)라는 신위가 모셔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무녕왕이 '바람에 의해 여기에 와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3년' 조에는 그해 가을 7월에 내신좌평 곤지가 죽었다 적고 있으며, '동성왕' 조에는 동성왕이 문주왕의 아우인 곤지(昆支)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다. 반면 『일본서기』는 무녕왕을 곤지의 형인 개로왕의 아들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곤지가 아내로 칭한 여인은 개로왕의 왕비였다. 그렇다면 곤지는 왜 임신한 형수를 아내로 삼으려 했을까? 그리고 『일본서기』의 기록처럼 곤지는 과연 개로왕의 동생이었을까 아니면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문주왕의 아우였을까?

무녕왕은 고구려가 말갈과 공모하여 자주 침입하자 이에 맞서 여러 차례 군사를 내어 격퇴하였다. 재위 12년에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어 조공하면서 국제질서에 대응해 갔다. 재위 21년 겨울 12월에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어 조공하고 "이에 앞서 고구려에게 패전을 당하여 여러 해를 쇠약하게 지내다가 이에 이르러 여러 번 고구려를 부수고 다시 강국이 되었다" [解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強國]고 표를 올렸다. 중국 사서 역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리고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 [累破高句麗, 百濟更爲強國]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렸다는 것은 국력을 크게 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굴된 합장 무덤인 무녕왕릉의 규모는 대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무녕왕은 23년 동안 재위하면서 강력한 백제를 꿈꾸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 왕에 오른 것처럼 그는 즉위 이후부터 국제적인 시선과 감각을 보내주었다. 무녕왕릉의 양식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탐묘(塔廟)제를 원용한 것이다. 부장된 유물들 역시 최고의 재질로 만든 것으로서 양나라의 무덤 속에 안장된 부장품들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발굴된 기와는 양나라의 기와 양식을 모방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백제와 긴밀한 교류를 했던 양나라가 무녕왕릉의 부장품 목록을 만들고 건네준 것으로 짐작된다. 무녕왕의 무덤 속에 부장된 왕과 왕비의 유물들은 당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백제가 지녀왔던 위상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감각을 지녔던 무녕왕은 재위 중 '국제화'라는 전략으로 백제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 통치자들의 세계 인식

한반도 서남쪽에 자리했던 백제는 국제성을 지향해 왔다. 백제는 한성백제를 잃고 웅진백제로 도읍을 옮긴 지리적 조건에서부터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복사』에는 "동쪽으로는 신라에 닿았고, 서남쪽은 큰 바다와 닿아 있으며, 북쪽 끝은 한강에 다다랐는데, 그 군은 거발성(居拔城) 또는 고마성(固麻城)이라 하며, 그 밖으로는 오방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통전』에는 "남쪽으로는 신라에 닿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경계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당서』에는 "부여의 만 종족으로 동북쪽은 신라요,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면 월주(越州)요,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면 왜국에 이르고, 북쪽은 고구려이다. 그 왕이 거처하는 곳은 동·서 두 섬이 있다"고 하였다. 『신당서』에는 "서쪽으로는 월주로 경계하고, 남쪽으로는 왜국인데 모두 바다 건너편이고, 북쪽은 고구려이다" 하였다. 이들

기록에서처럼 백제는 삼국 중 가장 길게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이면서 신라와 고구려와 왜국과 접해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백제가 일찍부터 반도 밖으로 시선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해서 가야에 이어 왜의 열도로 나아갔는가 하면, 근초고왕 때에는 여왕에 의해 산동반도로부터 하북성 등에 이르는 요서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강역을 확장시켰다. 서해와 남해는 백제의 앞마당이었고 그 결과 백제 문화는 신라와 고구려에 견주어 국제성을 띠었다. 이러한 국제성은 지리적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강성한 고구려와 가야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약했던 신라와 달리 남해 바다를 앞마당으로 삼았던 가야는 일찍부터 왜가야를 경략하면서 반도와 열도를 지배하였다. 고구려 역시 경기만 일대를 앞마당으로 삼으면서도 중원과 만주대륙으로 뻗어나갔다. 고구려와 가야의 이러한 확장은 백제에 많은 자극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계기는 아신왕이 왜국과 화친 관계를 맺으며 태자 전지를 파견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즈음 왜에 대한 가야의 영향력은 반도의 인나 가야 뿐만 아니라 왜 가야로 뻗어나가면서 크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가야가 백제와 왜와 연합하여 신라 정벌을 도모하자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구원을 요청한 신라를 지

23년 재위한 무녕왕 강력한 백제 꿈꿔 무녕왕릉 5C초 백제-왜 관계 지남돼

원하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에 힘입어 가야와 백제와 왜 연합군을 공략하면서 부산 대성동 전투에서 최종 승리하였다. 고구려 신라 연합군에 패한 금관가야의 응신(應神)은 왜로 민족을 대이동시켰다. 응신을 뒤이은 인덕(仁德)은 30여년 뒤 가와지 왕조를 창설하면서 가야는 다시 왜가야로 이어졌다. 왜 가야와 새로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신은 태자 전지를 왜국에 발모로 파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는 왜국으로 시야를 열었고 이후 백제는 국제적 인식이 있어 삼국 중 가장 앞서가기 시작했다. 왜국에서 태어난 사마왕 즉 무녕왕은 이러한 국제적 감각을 지닌 명망한 군주였다. 무녕왕릉에서 나온 왕과 왕비의 관재(棺材)는 일본에서만 나는 최고급 목재로서 일본 황궁을 기둥을 비롯해 귀족과 임금의 관재로 쓰였던 특산물이다. 이것은 왜국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무녕왕릉에서 발굴된 지석(誌石)의 탁본에는 무덤의 주인공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즉 무녕왕임을 가리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일본 고고학계의 정평이었던 마법의 거울 인물화상경의 주인공이 무녕왕임을 밝혀준 것이었다. 이처럼 무녕왕과 무녕왕릉은 5세기 초엽 백제-왜의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지남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 역사스페셜, 『무녕왕릉 발굴 30주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다섯 가지 의문』(2001)
-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우서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